

# 북한 보란듯...트럼프, 이란 핵협정 공식 탈퇴

## 3년 만의 경제제재 복원

## 3~6개월 내 거래 청산해야

## 금융·원자재·여객기 부문 등

## 개인 '블랙리스트'도 부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2015년 7월 협정 타결 이후 해제됐던 경제제재의 복원을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따라 오는 12일 이란 제재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3~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그동안 유예됐던 제재가 줄줄이 복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에 대한 여객기 공급 등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된 제재의 경우 오는 8월6일부터 복원되며 석유 부문을 비롯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180일 뒤인 11월 4일 복원된다.

미 재무부는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는 데 3~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그동안 이란과 거래해온 기업 및 기관들에 이란과의 거래 관계를 청산할 시간을 허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당장 90일 뒤부터는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매입, 취득이 제재 대상이 된다.

이란의 금, 귀금속 교역이나 이란과의 흑연 및 금속 원자재·반제품, 석탄,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직간접적 판매, 공급, 운송도 제재를 받는다. 이란산 카펫과 식품 등의 미국 수입도 제재를 받게 되며 금융 거래도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이란과 여객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사에 대한 허가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보잉사와 에어버스, 프랑스-이탈리아 합작사인 ART는 대이란 제재유예 이후 이란항공과 여객기 2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여객기 생산 과정에서 상당량의 미국산 부품이 사용되는 만큼 이란과의 여객기 공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려면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복원 방침에 따라 90일 유예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이란에 여객기를 공급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6개월 뒤인 11월 4일부터 적용된다.

보험을 제공하는 행위나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인 언더라이팅 서비스 등도 제재 대상이 된다.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도 6개월 뒤부터 적용되는데 이란 국영 석유회사(NIOC)나 이란 기업으로부터 이란산 석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란 해운·조선업 부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란중앙은행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도록 한 2012년 미 의회 제재안의 복원에 따라 6개월 뒤부터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이란중앙은행을 비롯한 이란 내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180일 유예기간이 설정된 제재가 복원되면 대이란 경제제재가 유예됐던 2016년 1월 16일 당시 미국의 블랙리스트(특별제재 대상)에 올라있던 개인에 대한 제재도 부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핵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탈퇴를 선언하는 각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리커창, 공식 방일

## 규모는 크게 축소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일본을 공식 방문하지만 그 규모는 역대 중국 총리의 방일에 비하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 총리는 8일 오후 일본에 도착해 1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을 제외할 경우 일본 공식방문 일정은 10~11일 이틀간이다. 2000년 10월 당시 주룽지 전 총리의 방일은 6일였고, 2007년 4월과 2010년 5월 원자바오 전 총리의 두차례 방일은 각각 3일이었다. 중화권 매체 뒤에는 9일 보도에서 리 총리의 방일단이 주룽지나 원자바오에 비해 확실히 축소됐으면서 리 총리의 수행단도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사오제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허리핑, 그리고 먼저 일본에 도착한 왕이 외교부장 등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원자바오 방일때는 당시 외교부장 양제츠, 발개위 주임 마카이, 상무부장 보시라이, 문화부장 쑤자징, 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 등이 수행했다.

주룽지와 원자바오 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할 때는 방일단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리 총리의 방일단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일본이 중국의 외교 현안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말레이 총선 오늘께 윤곽

## 61년 만의 정권교체 관심

61년만의 첫 정권교체 가능성으로 관심을 끄는 말레이시아 14대 총선 투표가 9일 쿠알라룸푸르 등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총선에는 144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하원의원 222명과 전국 주의회의 의원 587명을 뽑는다.

개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초박빙의 접전지 전망되는 만큼 총선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10일 오전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은 1957년 독립 후 61년간 집권해 온 집권여당연합 국민전선(BN)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하지만 지난달 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4개 야당이 연합한 신야권연합 '희망연대'(PH)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패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오바마 “트럼프 심각한 실수...북핵 협상도 그르칠라”

## 핵협정 탈퇴 강도 높은 비판

바라 오바마(사진) 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로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란 핵 협정 탈퇴가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북한 핵 협상도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이란 핵 합의를 이끌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정문의 성명을 내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의 산물인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것을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실은 분명하다.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작동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동맹국들과 독립적



인 전문가, 현 국방장관도 공유하고 있는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JCPO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크게 후퇴시켰다”면서 “아울러 그것은 외교가 이뤄낼 수 있는 모델로, 핵사찰과 검증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희망하는 마당에, JCPOA에서 탈퇴하는 것은 미국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과도 추진하는 바로 그 결과물을 완성해주는 협상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표가 잘못 인도된 이

유”라면서 “이란의 합의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JCPOA를 위기에 몰아넣는 결정은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JCPOA 없이 미국은 결국 ‘핵무장한 이란이나, 또다른 중동전쟁이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무기를 손에 넣은 이란이 지금보다 더 대담해지고,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며, 중동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JCPOA가 양자협정이 아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의 다자협정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 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

# 폼페이오, 김정은에 ‘위원장’ 호칭 붙여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원장 은(Chairman Un)’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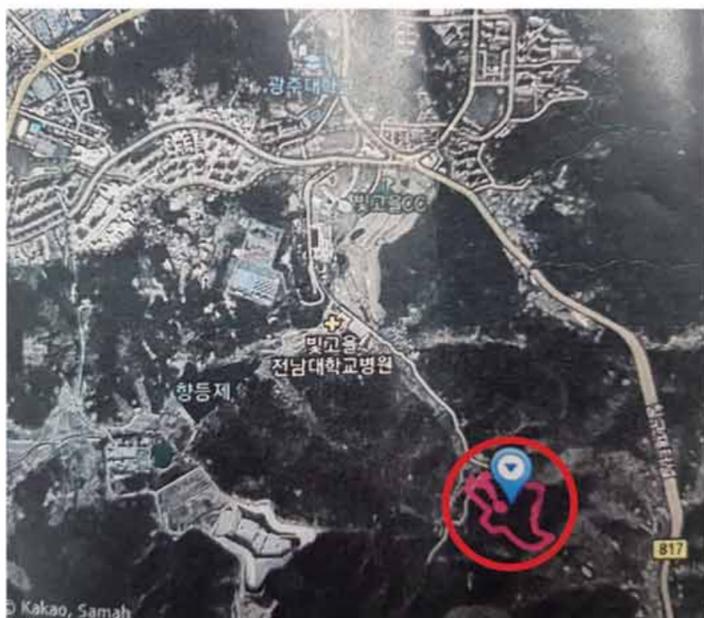
북미정상회담 사전조율을 위해 평양으로 가는 전용기 내에서였다.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에 이어 두 번째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방북의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위원장 은’ 사이의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해온 회담 의제들을 확정시킬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 대해 ‘김정은’ 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으로 칭해왔으며, ‘위원장’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다.



정상회담 상대로서 예우해준 호칭으로 받아들여진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한 차례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쓴 외에는 ‘김정은’이라고 불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장관의 1차 방북 이후인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많이 열려있고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지난해 ‘리틀 로켓 맨’이라고 부를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다만 ‘김’ 대신 ‘은’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는 한글과 영문상 성과 이름의 배치순서 차이 때문에 ‘은’을 성으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3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8-1230